

PD9) 도심지 공원의 범죄예방설계(CPTED) 적용방안 실증분석 - 양재 시민의 숲을 중심으로

최원준 · 서남규 · 최대현¹⁾ · 김정호²⁾ · 윤용한²⁾

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대학원, ¹⁾건국대학교 경찰학과, ²⁾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

1. 서론

최근 과도한 인구밀집과 도시화로 도시공원 내의 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, 사회적 관심 공간이 되고 있다(Kang and Park, 2013). 경찰청 통계(2012)에 따르면 공원 범죄 발생이 2001년(2,476건)부터 2010년(5,420건)까지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설계를 통한 범죄 발생을 줄이고자 예방차원에서 범죄예방설계(CPTED) 설계 등을 실시하고 있다.

그러나 대다수의 연구 및 행정적 절차는 대부분 도심지의 골목길이나 주택단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, 특히 현재 공원에 적용되는 CPTED 기법은 대부분 건축분야에서 활용하던 기법이 대다수로 공원에 적합한 기법이 부족한 실정이다.

이에 본 연구는 범죄예방설계(CPTED)가 적용된 공원인 양재 시민의 숲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도시공원의 CPTED적용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요소를 파악하여 도시공원에 적합한 CPTED 설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.

2. 재료 및 방법

공원 내 적합한 CPTED 설계 요소 및 적용방안을 파악하기 위해 시민의 이용 시간과 이용자 수가 비교적 높은 가을철을 중심으로 8월 말에서 10월까지 총 3달 동안 8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. 표본수의 경우 총 300개로 연구 목적에 부합한 147개의 표본을 회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.

통계분석의 경우 범죄예방설계(CPTED)의 적용방안 실증분석을 위해 기초통계, 측정모형 신뢰도 분석, 연구검증 3가지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. 인구통계학적 분석, 공원안전 및 범죄 우려, 등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통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, 마지막으로 불안요소 및 도입요소의 순위 선정을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.

3. 결과 및 고찰

공원 설계에 적합한 CPTED 요소 분석을 위한 공원 내 범죄 우려 공간분석은 “숲이 우거진 녹지”와 “숲이 우거진 산책로”등 폐쇄적인 공간에서 범죄가 우려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. 반면 “햇살이 들어오는 녹지”나 “키가 큰 교목이 있는 광장” 같이 개방적인 녹지에서는 범죄 우려도가 크게 감소했다. 반면 휴게시설, 시설물, 광장, 운동 시설물 등 자연적 감시가 큰 공간에서의 범죄 발생 우려가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.

성별에 따른 범죄 우려도의 경우 전반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의 우려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, 남녀 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.

공원 내 적합한 CPTED설계를 통한 도시공원 이용객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되도록이면 이용객의 음주를 지양하고 CCTV 및 조명의 추가설치를 촉진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. 반면 안정감을 위한 방안으로 키가 작은 관목에 의한 시야 차단을 줄이고 키가 큰 교목을 심되 밀식을 자제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.

4. 참고문헌

경찰청 통계, 2012.

Kang, S.-J., Park, M.-R., 2013, A Study on the safer parks using CPTED principles,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, Planning & Design, 29(3), 125-134.